



학생과 교수협의회, 총장 이사장 사퇴 요구 시위 벌여 “무능 총장, 이사장 사퇴하라!”

지난 23일,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서 '총장과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시위가 열렸다.

지난 21일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윤지만(무역 3) 학생은 '10월 23일 금요일 시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고, 이를 대자보로 제작해 교내 곳곳에 붙였다. 윤지만 학생은 글을 통해 총장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 상황을 비판하고

“여러분들의 주인의식이 현상태에 가장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김효근(역사문화 3) 학생을 포함한 약 40명의 학생들은 동참의 뜻을 밝히며 23일 오후 3시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총장 이사장 사퇴 요구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시위에 동참한 박준철 교수협의회 회장은 “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학교가 행정 차질을 넘어서 마비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이사회는 근거 없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 일부 이사들과 총장이 유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교수들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게 됐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D+는 총장 성적표인데 매 맞는 건 학생들이라니 등의 피켓을 들고 ‘무능

총장 즉각 사퇴’, ‘이사장도 사퇴하라’, ‘교협 추천 교무처장 임명하라’는 구호를 이사장실을 향해 외쳤다. 구호를 외친 후, 학생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중 남호현(경제 3) 경제학과 학생회장은 “경제학과 소속 교수인 강신일 총장은 스승의 날에 찾아갔었다”며 “그때 강 총장은 본교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등급은 D+이었고 이에 총장에게 A+의

행동을 요구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시위는 우촌관 이사장실 앞으로 이동해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끝이 났다.

23일 시위는 학생과 교수 모두가 참여해 의견과 요구 사항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2차 임시 이사회 결과와 그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고창수 교수, 잔디광장서 3일간 단식농성 벌여



지난 21일 오전 11시 고창수 교수는 '총장은 교협의 의결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총장실을 떠나라', '이사장은 그동안의 학교 운영의 파행을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를 요구하며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 현장에서 고창수 교수는 “주권재민이 원칙인 대학에서 교권이 곧 주권이다. 교수들이 학사행정의 참여 주체인데 강신일 총장과 이종훈 이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교수들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교는 위기를 돌파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창수 교수는 “이종훈 이사장은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투쟁은 자유지만 건강을 조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강신일 총장은 얼굴도 비추지 않고 있다. 단식농성을 하는 입장에서 이는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강신일 총장이 리

터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김귀옥 교수도 고창수 교수의 뜻에 동참했다. 지난 22일 김귀옥 교수는 고창수 교수를 지지하며 1일 단식을 단행했다. 김귀옥 교수는 “더 이상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은 사랑하는 학생들의 교육이나 진로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자성을 하게 되었다”며 단식투쟁 참여 동기를 밝혔다.

한편 고창수 교수는 2차 임시이사회 이후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임시 이사회 의결 결과 강신일 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었다. 하지만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교무처장으로 임명하지는 않았다. 이사회에 감사가 2명 있는데 이 중 한명이 임시총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들었다.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은 단식농성의 의미를 평가절하 한 것이다. 혼자 투쟁하고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단식농성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교수협의회, 요구사항 관철 강력 촉구

지난 9월 22일에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강신일 총장 사표 수리가 유보됐다. 다음날인 23일 진행된 임시이사회 공식 발표 자리에서 이종훈 이사장과 박준철 교수협의회(이하 교협)회장은 강신일 총장 사표 수리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웠다. 또 하루가 지난 24일, 강신일 총장이 '한성대학교 구성원에게 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이사회 의결 사항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23일 2차 임시이사회 직후 총장직을 떠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박준철 교협회장은 “현재 강신일 총장이 나가면 총장을 대행할 교무처장이 없다. 보직교수의 임명권은 총장에게 있는데 총장이 공석이면 이사회에서 보직교수의 임명에 관여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고, 더 이상의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강신일 총장과 의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박준철 교협회장은 “교협에서 선임 교무처장을 추천하면 임명하고 선임 교무처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직된 인사발령을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신일 총장은 ‘신임교무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해 달라’고 답했다”고 강신일 총장과 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이같은 상황을 의논하기 위해 교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8일 비상총회를 열었다. 비상총회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임교무처장 추천 후보자 3인을 선별하고, 이 3인을 놓고 교협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2인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2. 신임교무처장 행정 주도권 확보 방식 1) 총장은 복수 추천된 신임교무처장을 10월 16일 까지 임명하고 신임교무처장의 주도로 구성하는 새로운 보직된 인사발령을 10월 20일 까지 조치한다. 2) 위 1)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0월 21일부터 학부장/학과장 업무를 전면 거부한다.

비대위는 지난 8일 진행된 비상총회의결에 따라 9일 논의와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를 통해 신임교무처장의 후보자로 박명환(산업경영공학) 교수, 정병용(산업경영공학) 교수, 홍용식(경영학부) 교수가 신임교무처장 후보로 선정됐다. 최종 신임교무처장 후보 2인을 결정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인원 164명 중 120명(투표율 73.2%)이 투표했고, 투표결과 ▲박명환 교수 63표(52.5%), ▲홍용식 교수 33표(27.5%), ▲정병용 교수 19표(15.8%), ▲무효 5표(4.2%)로 박명환 교수와 홍용식 교수가 신임교무처장 후보 2인으로 선정됐다.

박준철 교협회장은 “비대위는 15일 총장실에 방문해 강신일 총장에게 신임교무처장 후보 명단과 비상총회의 결사항을 전달했으며 기한 엄수를 촉구했다. 다음날인 16일에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을 촉구하면서 결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비상총회의 결정에 따라 21일부터 학부장/학과장 업무를 전면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신일 총장은 교협에서 제시한 신임교무처장 임명 최종 기한인 16일에도 신임교무처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비대위는 “10월 21일 부터 학부장/학과장 업무를 전면 거부하고, 세 처장(김동환 학생지원처장(교무처장 겸임), 조자연 총무처장, 홍정환 입학홍보처장(기획전략처장 겸임))은 즉시 업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3일 2차 임시이사회에 앞서 박준철 교협회장은 “임시이사회에서 ‘강신일 총장 사표 수리’, ‘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교무처장으로 임명’ 이 둘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12명의 주요 보직자들이 임무를 중단하여 학교 행정은 마비가 되고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며 교협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지면안내

보도 02
대동제 예산 인준없이 사용 논란



사회 03
논란의 중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사람사 05
인앤지 컨설팅 김정기 대표를 만나다
“진짜 목표는 취업이 아닌 삶의 축을 세우는 것이다”

학술 06
중국 동부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문화 07
혼자서도 잘 먹어요



동정란

김창룡(한국어문학부) 교수 김 교수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되는 2015세계서예전북 비엔날레의 (명사초대전)에 서예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도서출판 보고사에서 「한국의 명사기」를 출간했다.

조규태(역사문화학부) 교수 조 교수는 한국민족운동사학회의 회장으로 지난 23일 중국의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에서 국가보훈처의 후원을 받아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과 공동으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항일투쟁'이란 대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령

면 부편집국장 임태미 (사각영상 2)

대동제 예산 인준없이 사용해 논란일어

| 1차 대의원총회 |

| 하반기 예산 기획안 | | |
|---|-------------|---|
| 기구 | 총액 | 인준 |
| 총대의원회 | 25,764,700원 | 대동제 예산을 제외한 7,787,700원 → 89명 중 76명 찬성으로 가결 |
| 예술대학 학생회 | 1,832,000원 | 89명 중 67명 찬성으로 가결 |
| 공과대학 학생회 | 1,991,600원 | 91명 중 79명 찬성으로 가결 |
| 졸업준비위원회 | 1,150,000원 | 91명 중 80명 찬성으로 가결 |
| 인문대학 학생회 | 3,200,000원 | 인문대 연합엔티 예산을 제외한 1,500,000원 → 88명 중 79명 찬성으로 가결 |
|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 1,832,000원 | 84명 중 76명 찬성으로 가결 |
| 학생복지위원회 | 2,968,800원 | 85명 중 79명 찬성으로 가결 |
| 동아리연합회 | 900,000원 | 85명 중 73명 찬성으로 가결 |
| 감사위원회 | 500,000원 | 85명 중 71명 찬성으로 가결 |
| 학생회칙 개정안 | | |
| 5장 투표 | | 5장 투표 |
| 25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 투표는 하루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하에 2일을 할 수 있다. | | 25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 투표는 2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하에 1일을 추가할 수 있다. |
| 단,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한다. | | 단,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한다. |
| 85명 중 78명 찬성으로 가결 | | |

* '총대의원회 대동제 예산' 및 '인문대학 학생회 인문대 연합엔티 예산'은 2차 대의원총회에서 재심의

| 2차 대의원총회 |

| 하반기 예산 기획안 | | |
|------------|-------------|-------------------|
| 기구 | 총액 | 인준 |
| 총대의원회 | 17,977,000원 | 71명 중 66명 찬성으로 가결 |
| 인문대학 학생회 | 1,500,000원 | 72명 중 52명 찬성으로 가결 |

2015학년도 하반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낙산관 대강당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총대의원회 하반기 예산 기획안, ▲예술대학 학생회 하반기 예산 기획안, ▲공과대학 학생회 하반기 예산 기획안, ▲졸업준비위원회 하반기 예산 기획안, ▲인문대학 학생회 하반기 예산 기획안,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하반기 예산 기획안, ▲학생복지위원회 하반기 예산 기획안, ▲동아리연합회 하반기 예산 기획안, ▲감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기획안, ▲학생회칙 개정안 순으로 9개의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재적인원 149명 중 95명이 참석했으며, 인준 안건은 기수표결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9개의 안건 중 '총대의원회 하반기 예산 기획안 중 대동제 예산', '인문대학 학생회 하반기 예산 기획안 중 인문대 연합엔티 예산'을 제외하고 모두 가결되었다. 총대의원회와 인문대학 예산 기획안은 재심의가 필요하지만 자료가 준비되지 않다는 이유로 산하화됐다.

대동제 예산 대의원 인준 거치지 않고 임시로 사용해 논란일어

대의원들은 총대의원회가 지난 10월 7일, 8일 양일간 진행된 대동제 예산 총액 17,977,000원을 대의원 인준을 거치지 않고 임시로 사용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누가 임시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동의한 것이냐"는 대의원의 질문에 최치현(컴공 4) 총대의장은 "대동제 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동의를 하고 임시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의원은 "최종 결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추제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돈을 사용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이미 사용한 예산인데 무조건 인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최치현 총대의장은 "앞서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이번엔 진행된 대동제 예산 중 대동제

STAFF 티셔츠와 'STAFF 및 자원봉사단 식대'를 제외한 예산은 아직 지출한 것이 아니다. 계약금을 학교에서 지불해 계약만 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무조건 인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안 심의를 거쳐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환불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데 대동제 예산은 중운위에서 임시로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때 인준을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문화학부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당시 인준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최치현 총대의장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인준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동제 예산을 임시로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예산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로 사용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인문대학 연합엔티에 참가하는 학생은 한 학과 당 10%에 불과, 소수에 국한된 행사에 학생자치비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 제기

인문대학 학생회는 지난해 인문대학 연합엔티 진행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 올해는 90만원을 추가한 15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대의원들은 "인문대학 전체의 10%도 안되는 인원인데 이는 연합엔티라고 볼 수 없다. 각 과의 학생회만 참여한다고 봐도 되는 인원인데 이런 행사에 학생자치비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전을 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다솜(지정 4) 인문대 부학생회장은 "사대와 공대가 단합을 위한 행사로 체전을 진행했듯이 인문대학 연합엔티도 같은 맥락으로 봤으면 좋겠다. 15학년 신입생들은 새내기 배움터도 못 갔기 때문에 비슷한 행사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인문대학 연합엔티 예산 기획안에 세부사항을 명시해 놓지 않고 구두로 설명하는 것에 대

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다솜 인문대 부학생회장은 "지난주 상임위원회 때 작성한 자료들이다. 그 당시에는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어 세부사항을 적지 못했다. 예산 기획안을 수정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총대의원회, 인문대 학생회 예산 기획안 자료부족으로 재심의 열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예산 기획안의 일부를 2차 대의원총회에서 재심의 했다. 지난 15일 오후 4시 탐구관 지하 102호에서 열린 2차 대의원총회에서 총대의원회와 인문대학 학생회는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지적받은 예산 기획안을 보충 설명했다. 총대의원회의 대동제 예산안은 71명 중 66표로 가결되었고, 인문대학 학생회 인문대 워크샵 예산안은 72명 중 52표로 가결되었다.

이번 회의 운영에서 미숙함 보여

학생회칙 제3장 23조 1항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1월에 대의원총회 의장이 소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 대의원총회는 일정연기에 대한 공지 없이 10월 12일에 진행됐다. 이에 대해 최치현 총대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려면 7일전에 공지해야 한다. 7일전에 공지를 하려다 보니 늦어졌다. 그리고 대의원을 뽑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학생자치비가 얼마인지 받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대동제 예산이 결정된 것은 9월 20일 이후였다"고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의원총회에 대해 '안건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 대의원이 질문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는 구조', '대의원총회는 안건을 보고받는 자리가 아닌 대의원의 심의를 통해 의결하는 곳'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수시 적성고사 올해로 마지막



2016학년도 수시 적성고사가 지난 1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본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적성고사에는 6,719명이 지원했으며 경쟁률은 26.04:1로 29.34:1이었던 작년보다 감소했다.

한편 본교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적성고사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적성고사는 교과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적성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을 뽑자는 취지의 수시 임시 고사로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생부 종합 전형에 활성화 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눈송고

사와 적성고사 같은 임시고사가 축소되거나 폐지되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도 줄어들자 본교도 올해를 끝으로 적성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상욱 입학관리팀장은 "올해 처음 농어촌과 특성화 전형에 한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며 "이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거친 후 적성고사 대신 일반학생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앞으로의 임시 방침을 밝혔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3·4차 학습법 워크숍 열릴 예정

본교 교육역량개발센터는 내달 12일과 19일에 각각 '패워포인트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워크숍과 '발표와 면접'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역량개발센터는 지난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습법 워크숍을 매 학기마다 진행하고 있다. 2학기에는 이번에 진행될 워크숍에 앞서 노트 필기 및 리포트 작성 방법과 시판관리 전략 워크숍이 진행될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들이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답한 스피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열린다. 학생들은 발표능력과 관련된 스피치 증진과 더불어 PPT와 같은 발표 자료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필요로 했다. 교육역량개발센터는 중간고사 이후가 '발표과제' 기간임을 고려하여 이번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해 인포그래픽과 스피치 워크숍을 실시한다.

패워포인트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워크숍은 내달 12일 미래관

B107호에서 톨 디자인 대표인 이상훈 강사의 진행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7일에는 미래관 B103호에서 오미영 전 아나운서가 강연하는 '스피치 실용 중심의 발표와 면접' 강의를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워크숍 참여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역량개발센터는 참여 학생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한성여류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이정연(교육역량개발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번 워크숍으로 재학생들은 실습과 체험을 통해 PPT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방법과 스피치 전략을 습득할 것이다"며 "이는 발표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본교에서도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 일어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논란이 된 가운데 본교 교수들과 학생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본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9명 전원을 포함한 서울 소재 13개 대학의 역사 전공 교수 72명과 수도권에 있는 9개 대학 역사 전공 교수 27명은 지난 18일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본교 권기중(역사문화학부) 교수는 "역사 교과서에는 사실만 서술되어야


하며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관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정교과서에는 사실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국정교과서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라고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했다. 본교 교수들의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성명이 있던 다음날에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화학과 학생 두 명의 대자보가 미래관 유리창에 붙었다.

대자보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희선(회화 3) 학생은 "전공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조하는 것은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것과 같다"며 "대자보를 통해 국정교과서 사태의 심각성을 학우들에게 알리고 서명운동 참여를 요청하고 싶었다"고 대자보를 붙인 이유를 밝혔다. 이튿날인 20일에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정당화 중단하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미래관 컴퓨터실 앞을 비롯한 3곳에 붙여졌다. 이 대자보에는 본교 역사문화학부 3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홍진이(역사문화 2) 학생은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계속 국정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을 모아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본교 역사문화학부에서는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해 국정교과서에 대한 학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26일 월요일에 탐구관 앞에 부스를 설치해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을 받을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HANSUNG UNIVERSITY DIGITAL LIBRARY

한성아카이브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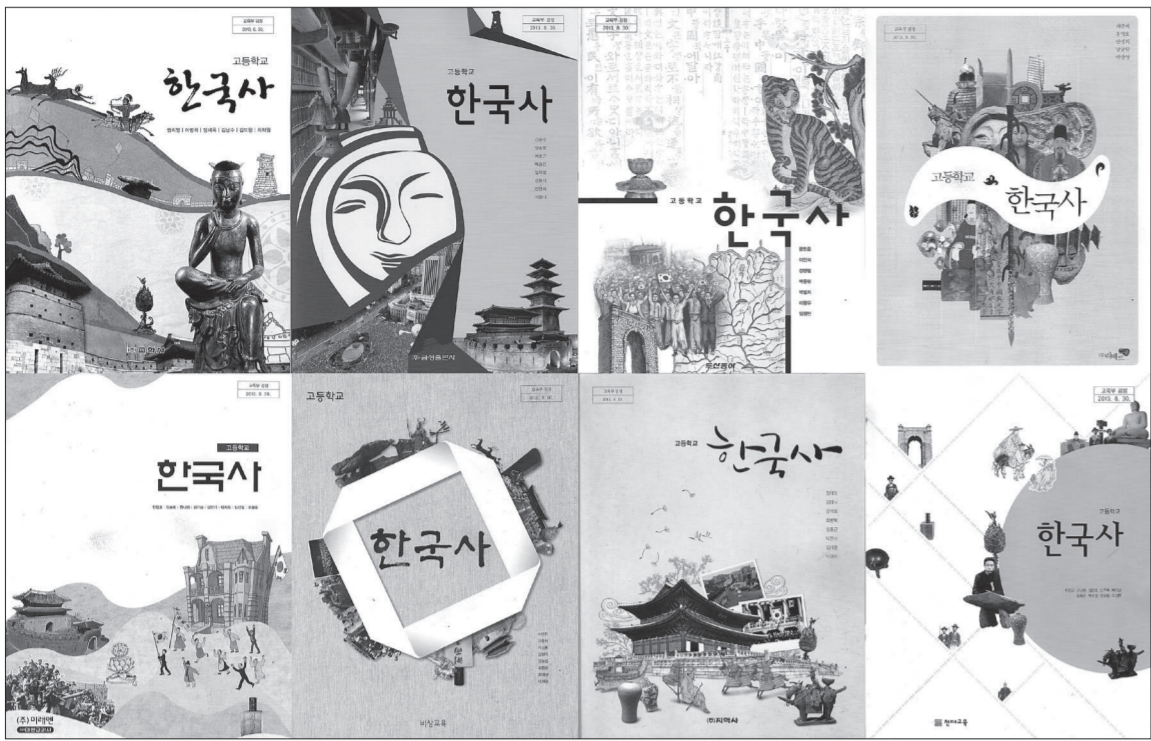
한성의 기록, '우촌' 그리고 '우리'

주 관 | 학술정보관
장 소 | 학술정보관 갤러리(2F)
기 간 | 2015년 10월 2일(금) ~ 31일(토)

학술정보관에서는 그동안 수집해 온 한성의 기록을 선별·정리하여 한성아카이브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립자 우촌 김의형 박사와 한성캠퍼스, 한성인의 모습을 담은 옛 사진 기록을 통해 한성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빛나는 역사를 함께 꿈꾸고자 합니다.

논란의 중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친일-독재 미화” vs “좌편향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사진 출처: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지난 1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계각층에서 찬반 여론이 형성되면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왜 논란이 되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도 있다. 국정도서가 있을 때 학교에서는 반드시 국정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위탁하여 편찬할 수도 있다. 국정도서가 있을 때 학교에서는 반드시 국정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위탁하여 편찬할 수도 있다. 국정도서가 있을 때 학교에서는 반드시 국정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위탁하여 편찬할 수도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있다. 찬반 입장의 주요 쟁점은 6·25 전쟁의 원인 기술, 근현대 남북 지도자에 대한 평가, 대한민국 건국 시점과 기원 등이다. 찬성과 반대 여론은 서로의 시각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흔히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개국에 불과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교육부, 그들의 입장은?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역사교과서는 지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잦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정제도의 전환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11월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편찬심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11월말까지 교과서 집필을 한다고 밝혔다. 이후 내년 12월에 교과서 감수 및 현장적 합성을 검토하고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전했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으로 발행하면 검정

으로 완전 전환한 2011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국정으로 발행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올해 예비비 중 44억을 끌어와 예산으로 편성했고, 교육부는 예산이 쓰이는 세부사항에 대해 일을 담고 있어 비난의 눈초리는 거세지고 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긴급 규탄 결의대회에 찾아가다

기자는 13일, 400여 개의 진보 성향 단체의 연대기구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주최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긴급 규탄 결의대회를 찾아가다. 7시가 조금 넘어 진행된 규탄 결의대회에는 활발한 날씨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친일-독재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 ‘역사쿠데타를 멈춰라’라고 쓰여진 플래카드와 촛불을 손에 쥐었다.

참가자들 중에는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규탄 대회를 찾은 대학생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권대근(연세대학교) 학생은 “뉴스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접하게 됐다. 또 어찌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며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이 연행됐다는 뉴스도 봤다.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싶었다”라며 규탄 결의대회 참여 계기를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해결을 위한 동아리인 ‘평화나비’에서 활동 중인 여대생 A씨는 “역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역사교과서는 획일화된 생각을 강요하며 마치 그 역사가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규탄 결의대회가 시작되자 중고등학교 역사교사, 대학생, 고등학생 등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독립군’ 소속 김주식(중앙대학교) 학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된다면 교과서를 배우는 주체인 학생들이 하나의 획일화된 역사관을 갖고, 하나의 생각과 고민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

이 됐다”며 “어제(12일) 이순신 동상에서 제가 속한 청년독립군 2명이 열심히 싸우다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반한·반미·친북성향 기술로 대한민국 국정통성을 훼손하고 국민 주권에 근거한 헌법 대신, 민중 주권에 근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한국사 검정교과서를 비판했다. 그들은 “역사 교과서는 그동안 끊임 없는 사실오류 및 허위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사회 통합적 정책이며, 이념 논란을 불식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지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나선 대학생들과 교수들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대학생 15명이 “박근혜 국정교과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위에 올라가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남학생 5명, 여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이순신 동상에서 청와대로 향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경찰은 그들을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 여학생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대학생 15명에 대해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며 4차례 해산명령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나 불응해 연행했다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대학이 곳곳에서 이들을 지지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대자보도 붙이고 있다.

대학교 학생회들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나섰다. 지난 16일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경대학(사회대학) 학생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역사를 제대로 지배자가 되려는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 전공 교수들 역시 이 같은 뜻에 동참했다. 가장 먼저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의사를 표명한 곳은 연세대학교 교수들이었다. 13일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은 “연세대학교 교수들은 한국사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 이들은 “40년 전 유신정권이 단행했던 교과서 국정화의 목은 기억이 2015년의 한국 현실에서 재현되는 모습을 보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지금의 한국 사회는 40년 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들의 뒤를 이어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서울 소재 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들과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지방국립대학교 교수들도 계속해 국정 한국사교과서 집필 거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8일, 본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전원 역시 집필 거부 선언에 동참했다. 이 때문에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찬성 여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격렬한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그들은 후대에 현재와 같은 좌편향적 역사교육이 아닌 올바른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를 지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자유청년연합, 한국대학생포럼 등 대학생들이 다수 소속된 청년단체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청년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반한·반미·친북성향 기술로 대한민국 국정통성을 훼손하고 국민 주권에 근거한 헌법 대신, 민중 주권에 근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한국사 검정교과서를 비판했다. 그들은 “역사 교과서는 그동안 끊임 없는 사실오류 및 허위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사회 통합적 정책이며, 이념 논란을 불식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지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위와 같은 청년단체들처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찬성하는 교수들도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등 교수 102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모임’은 “정부가 책임지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과 소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동맹이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뒤이어 지난 19일 발표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공동선언문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에 오른 이름 중 몇 명이 이름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경대학(사회대학) 학생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역사를 제대로 지배자가 되려는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확대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달 2일이 지나면 행정예고가 끝나고, 교과서 집필에 들어간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우리가 역사를 잊게 될지, 아니면 올바른 역사를 배우게 될지는 최종으로 나오게 되는 교과서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부의 말처럼 공정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출판될지는 의문점이 남는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알아라

땅에 떨어진 지갑, 주운 사람이 임자?

대학생 김철수(가명)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신 그는 늦은 밤 집을 가다가 길바닥에서 시커먼 물체를 발견했다. 집어들고 보니 지갑이었다. 지갑에는 현금 10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다. 이게 웬 재인가 싶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금의 유혹은 강렬했다. 지갑을 챙겨 그대로 길을 가는데 잠시 후 뒤에서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다.

“잠깐만요. 그 지갑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요, 길에서 주웠는데요.”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도 되나요? 내 지갑이라고요?”

지갑의 주인은 김씨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 김씨 처지에서는 ‘운수 좋은 날’이 재수 없는 날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챙겨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죄이길래.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이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 주인을 몰래 훔쳤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 예를 들어 잘못 배달된 편지나 택배를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거나,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많이 돌려받은 것을 나중에 알고도 챙겼을 때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처벌수위가 비슷한 절도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죄이다. 즉 남의 물건을 주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왔을 때는 절도죄가 되고, 그렇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는 말이다.

실제 법정까지 오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김씨처럼 주인에게 걸렸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김씨는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이치로 지하철 선반에 있는 가방이나 노트북, 핸드폰 등을 들고 가다 발견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 분실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과 택시 등에서 습득한 스마트폰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이들도 있는데 이것도 명백한 범죄이다.

반면 출집이나 은행에서 손님이 놓고 간 휴대폰을 챙기거나 당구장에 떨어진 금반지를 몰래 슬쩍 한 사람에게 절도죄가 적용된 판례가 있다. 길거리나 지하철과 달리 술집이나 당구장은 업소 주인의 관리(점유) 아래 있으므로 그곳에서 물건을 가져간 것은 도둑질(절도)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만일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들였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고물품이라도 지나치게 싸거나 의심스러운 물건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그렇다면 남의 물건을 발견했거나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실물법에 답이 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휴대폰을 습득하면 통화를 한 뒤 곧바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 돌려주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우체국에 전달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두면 주인을 찾을 수 있다.

유실물법에는 주인이 물건을 찾게 되면, 주인은 습득물의 보관비, 보상금 등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상금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하며 청구기간은 1개월이다. 예를 들어 시가 50만 원의 스마트폰을 습득해서 주인을 찾아주었다면 사례비로 5만원~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가깝게 이런 보상금을 놓고 주인과 습득자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법을 떠나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만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민법에 따르면 “유실물은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최소한 반년은 주인이 나타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땅에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폰, 지하철 선반에 놓인 노트북을 들고 가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되어 일상생활에 법이 개입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용국(법원공무원, 법률칼럼니스트)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2015년 제9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 지정 주제 (택1)

- 〈주제 1〉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맞물려 ‘청년’이 핫이슈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제시하고, 20~30대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설득형 프레젠테이션을 하시오.
- 〈주제 2〉 최근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민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설득형 프레젠테이션을 하시오.
- 〈주제 3〉 학문의 ‘융합’과 ‘복합’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학문의 ‘융합’과 ‘복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여, 자기 전공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들어 청중을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시오.

※ 지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회 일정

1. 예선 접수: 2015년 10월 26일(월) ~ 2015년 11월 6일(금)
2. 예선 심사: 2015년 11월 12일(목) 오후 4시 ~ 6시 / 탐구관 502-504
3. 본선 대회: 2015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 7시 / 미래관 DLC

✓ 접수 방법

1. 방문 접수: 사고와 표현 사무실(연구동 B1)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2. 홈페이지 접수: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접수
3. 이메일 접수: 사고와 표현 이메일(writing@hansung.ac.kr)로 접수

※ 접수 시에는 ‘학과/학년/이름/연락처/선택 주제’를 명시해야 합니다.

✓ 시상 내역 및 상금

- 최우수상 1명 - 상금 50만 원
- 우수상 2명 - 상금 각 20만 원
- 진취상 7명 - 상금 각 10만 원
- 인기상 1명 - 상금 10만 원

※ 인기상은 청중과 심사위원의 투표를 통해 선정합니다.

✓ 기타 대회 참가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출석 협조문 발급 가능

✓ 문의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 02-760-4354), 이메일(writing@hansung.ac.kr)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자유게시판

| 2013년 6월 17일 | 8월, 9월 | 2014년 1월 9일 | 9월 | 2015년 9월 | 10월 1일 | 12일 | 12월 1일 ~ |
|----------------------|--|-------------------------------------|--------------------------------|--|------------------------|-----------------------|-----------------------------|
| 박근혜 대통령 역사검정교과서 문제제기 |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사 통과한 직후 오류 논란 확산 | 서남부 교육부장관, 교과서 발행과 관련된 검수 시스템 강화 예고 |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안 4가지로 제시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맞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활착한다고 예고 | 새누리당 한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 구성 |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각계각층 찬반논란 확대 |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교단에서

천영준 (지식 서비스&컨설팅 연계전공 교수)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남겨진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아닌 그가 식물학 이론에 정통했다는 사실 덕분이다. 와트니는 31일 정도 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기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의 흙을 파 오고, 내부에 지구의 토양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감자를 재배하는 데 성공한다.

어디 그 뿐인가. 와트니는 자신이 대학 때 배웠던 화학 지식을 동원해 플루토늄을 동력으로 사용, 화성 상층권까지 운전해서 이동하는 데 성공한다.

물론 그 와중에는 엄청난 외로움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항상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트니가 굳세게 화성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환하는 데에는 자신이 배웠던 이론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절망해서 죽어버렸을 타이밍에, 와트니는 자신이 화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일지를 남기고 기뻐하는 식이다.

도대체 이론이 무엇인가에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을 살려내는 힘이 있는 것일까? 이론은 과거 학문의 선조들이 오랫동안 고

이론의 중요성

민하고 연구해 왔던 것을 일반화된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틀이다. 보통 상아탑인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들을 '이론'이라며 폄하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그런데 이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론의 또 다른 기능은 와트니의 경우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옛날 철학자들은 인간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를 백지(tabula rasa)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철학이든, 역사가든 무엇인가 공부하고 깨우쳐야만 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맨 눈으로 인간이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없기에 학문이라는 '안경'으로 시력을 보정해야만 한다고 봤던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은 훗날 철학자들 사이에 술한 논쟁과 연구 대상이 되었지만, 오늘날 대학에서 왜 이론 교육이 여전히 중요하며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 학문 강의를 유지되어야 하는지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세컨드 무버'(second mover)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따라잡을 때도 이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연구의 강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한 응용기술 개발에 더

오랫동안 매달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60년대부터, 우리의 경우에는 70년대부터 국가가 기초과학 진흥 사업에 적극 나섰다. 응용 기술을 토대로 쌓아 올린 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말이다. 2000년 대 들어서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인구당 기초과학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다름아닌 '이론'의 힘이다. 수많은 서구 학자들이 실험하고 검증해 왔던 것들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기에, 빠른 따라잡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퍼스트 무버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세컨드 무버는 여유있는 시선과 깊이로 조망할 수 있다. 앞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시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퍼스트 무버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한성인들의 삶에서도 이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치열한 경쟁 시대이고 취업 문 쫓기가 예전 같지 않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사회는 '안목' 있는 인재를 원한다. 그 안목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배움이고, 그 근원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아닐까.

사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실효성 거두려면

올해 처음 정부는 소비가 침체된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야심차게 기획했다. 정부는 이 행사가 민간소비 0.2%포인트, 4분기 국내총생산(GDP)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보하였고,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백화점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벌였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참여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20.7% 정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선 국내 산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반쪽 행사가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과 함께 소비자들도 정기 세일과 다를 바 없다는 냉소적 반응이다. 패션 업계에서는 실제 호조로 보이는 것은 감각이 떨어졌던 날씨가 국경절을 맞은 중국인 관광객 급증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유통, 리테일 업체들이 연말 재고를 없애기 위해 대형가전·패션·명품을 주된 품목으로 하여 70~90%의 대폭적인 가격할인 행사를 벌인다. 이것이 블랙프라이데이 원조이다. 국내 유통업체가 참여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10~30%의 낮은 상품 할인 폭으로 미끼상품 할인률 정도이며 할인 채택 방식도 1+1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상품 품목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 행사의 성격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컨슈머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정도이다. 그 이유는 국내 산업 구조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상이하다. 미국의 블랙프

라이 행사는 리테일자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유통 구조이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인 상품을 행사 기간에 싼 가격에 방출할 수 있고 더불어 소비자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유통업체는 임대형식으로 수수료 이득 위주의 구조여서 상품의 할인 폭이 늘수록 그 부담은 제조업체가 떠안게 되어 있다. 국내 제조업체는 재고도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의 경우 주도하여 상품 할인을 유도하기 어렵다. 결국 유통업체들이 참여한 올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유통업체들이 마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을 구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정례화한다고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긍정적 비전보다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이익도 고려하지 않는 '내수 시장 회복과 경제 성장'만을 외치는 유통행사는 성공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블랙프라이데이'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 정부는 성급한 행사 추진보다는 제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전통 시장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내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가능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삼학송

고민과 충정심 끝에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미흡한 대학(D, E등급)에 한해 진행되는 컨설팅이 곧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 다소 미흡한 D+ 등급을 받은 본교는 부실대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총장의 사표 '수리나', '유보냐'를 두고 '이사회'의 주도로 보직팀을 꾸리나, '교수협의회의 주도로 보직팀을 꾸리나'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등 각각의 입장만이 존재한다. 강신일 총장은 '이사회결과와 관계 없이 총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교수협의회의 회에서 선출한 교무처장후보를 신임교무처장으로 임명하고, 신임교무처장의 주도로 보직팀을 꾸릴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교협에서 선출한 후보를 교무처장으로 임명하지 않아 학과장/학부장

은 업무를 중단했다. 또한 이번 임시이사회 결과 교수협의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요보직 12명의 업무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현재 본교는 교육부의 컨설팅 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수시·정시입학, 예산 감사, 교육과정 개편 등 중요한 행정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와 교수협의회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 결과 부실대학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夢生散死)'는 말이 있다. 부실대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차를 가해도 부족할 지금, 본교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해 있나. 이사회와 '고민'과 교수들의 '충정심'은 누구를 향해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다.



기자수첩

오그림 (무역 4)

영화 '백 투 더 퓨처' 속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온 2015년 10월 21일이 지났다. 1985년에 개봉한 이 영화가 담은 미래, 2015년에는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녔고 3D광고에 주인공은 화들짝 놀랐다.

2015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영화와 그리 다르지 않다. 당연하게 생각되던 일상이 과거 30년 전만해도 공상과학 영화에만 존재하던 꿈같은 미래였더니 참 기분 좋은 이야기다. 영화 속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곧 2017년이면 출시된다고 하니 이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나도 과거에 미래를 기대하며 기

백 투 더 퓨처

록한 적이 있다. 1학년 첫 전공수업의 과제였는데, 앞으로의 대학 4년,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것이었다. 한 학기가 주어졌고 긴 고민과 여러 번의 수정 끝에 기획서를 완성하였다. 새나기의 폐기가 가득했던 기획서에 따르면 고학년이 된 지금의 나는 3개 국어가 능통해야 한다. 이외의 계획들은 나름대로 이루어 나갔다.

내가 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속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함께 발전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한성대학교에 속한 우리는 학교와의 미래를 함께 꿈꿨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한성대가 보다 발전할 것을 기대했다.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학생들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놓았다. D+를 받은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시위를 하는 학생들 옆으로 전공 책을 들고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지나갔다.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갔다. 이제 곧 기말고사도 다가올 것이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본교의 미래가궁금하다. 하지만 '백 투 더 퓨처'의 주인공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훌쩍 갈 수 없는 현실이 한 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국가가 홀로 결정해서 '국정화'인가



낙산에 올라

김경영 (행정 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그야말로 요새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키워드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더 그러하다. 매일같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성명이 발표되고 있고, 대학생들은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대집회에 나서고 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다들 반대할까.

현재 국내 한국사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들이 각기 집필진을 구성해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거나 시,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검·인정 체제로 발행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란 민간 출판사들의 한국사 교과서 출판을 금지하고 국가가 직접 집필진을 구성하고 총괄하는 하나의 국정 교과서로 통일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근거로 기존 교과서들의 좌편향 성향 통일되지 못한 역사교육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수장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녀관계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초고속 경제성장이라는 눈부신 업적이 있지만 '독재'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의 오점을 조금이라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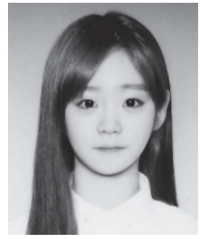
여기에 국정화가 진행된 과정이 그러한 의심이 커져가는 것에 대해 일조했다. 처음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국회의 의결절차가 필요없는 정부 예비비로 추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매일 같이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성명을 내고 국민 여론의 50% 이상이 '국정화 반대'를 외치고 있는 데도 불

구하고 눈감고 귀담은 모양새로 국정화를 감행했다. 이같은 정부의 너무나도 독단적인 자세가 오히려 '독재'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확실히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정교과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민간출판사들이 자유롭게 출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검사와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 통과가 되어야만 교과서로 나올 수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현재 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이 짙다면,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동안 정부의 심사체계가 허술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반증하는 셈이다. 기존 한국사 교과서와 발행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현행 검·인정체제를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국정화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옳옳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가운데로 두겠다고, 다른 반대쪽으로 핵 깎아버리는 처사나 다름이 없다.

타인이 쓴 다이어리



낙산에 올라

황지현 (무역 3)

연말, 연초 선물에는 다이어리가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주고 받는 선물 중 하나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기록하고, 후에 그날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다 쉽게 기억해내고 추억할 수 있어 다이어리를 많이들 선물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이 크게 보면 '나라'의 사람의 역사를 적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쓴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잘 썼다고 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의 미래들이 공부할 교과서에 관한 공방이 한창이다. 바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이다. 현재 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화'를 통해서 출판되고 있다. 각 출판사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교육부 교과서 관련 과에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출판 허가를 하는데, 이 교과서들을 검정 교과서라고 한다. 이러한 것과 반대라고도 볼 수 있는 '국정화'는 현재 검정 체제의 교과서 출판을 금지시키고 교육부에서 역사과 교수들 및 교

사들을 모아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보면 국정화가 된다면 교육부에서 직접 교과서를 편찬하고, 검정해서 단일 교과서가 나오는데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 국정 화가 되면 국가만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도 빠질 우려가 있다. 최악의 경우 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은 삭제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것이다. 편향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교과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을까? 국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교과서에서 좌편향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국정화가 된다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찬성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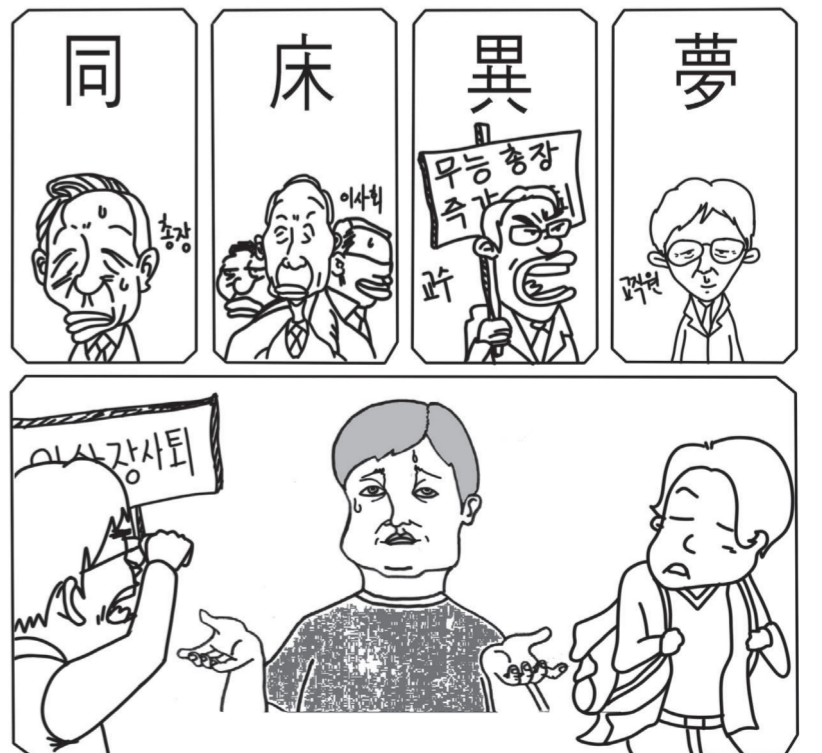
나는 국정화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때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다. 국

정화된 교과서가 무조건 한쪽으로만 역사를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거저된 과거를 자랑할 미래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에 분노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화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 놀랐던 것은 현재 우리 교과서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그걸 알게 되니 생각이 조금 변했다.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기는 하지만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전에 현 교과서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정화가 된다면, 국정화로 우려했던 역사를 보는 시각의 치우침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가 바라본 나의 하루가 좋을지, 나뻐지는 모른다. 다만 나의 하루는 지나갔고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기억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또한 그렇다. 역사학자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같은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 그 흔적을 국가가 임의적으로 삭제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

낙산만평

한지선(매디 2)



아주 사적인 시간 **인앤지 컨설팅 김정기 대표를 만나다.**

‘아주 사적인 시간은 인터뷰 대상 선정부터 컨택까지 기자의 개인적 취향과 사심이 가득 담긴 인터뷰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진짜 목표는 취업이 아닌 삶의 축을 세우는 것이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하반기 공채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 이제 2학기도 반이 지났다. 졸업 혹은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을 우리 20대. 명확한 목표를 향해 4년을 걸어온 사람도 있는 반면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막상 취업을 했더라도 '과연 잘 한 것일까?' 의문도 들기 마련.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도대체 취준(취업 준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은 뭘 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오리는 그룹 인사부서에서만 24년을 근무하고 지금은 인앤지 컨설팅 대표로서 분교에서 성과관리 방법론을 가르치는 김정기 교수를 만났다.

오리온그룹 인사팀에서 오래 근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IMF 이후 기업의 인사제도는 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일할 당시 직무급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사내 인사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외를 오가며 인사제도를 연구해 더 적합한 인사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회사를 나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로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고 오랜 시간 인사부서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인사 컨설팅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통하고 있죠.

궁금합니다. 기업은 대체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나요?

기업 문화에 따라 원하는 인재상이 다릅니다. 어떤 기업은 도전정신을 중요시하고 어떤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어떤 기업은 성실함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인재상은 기업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인재는 인성이 바로고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스펙보다 인성과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일명 무스펙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보다 중요해졌어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것이죠. '우리 회사와 맞는 사람인지, 우리 회사의 일과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출중한데 막상 뽑았더니 일을 잘 못하고 기업에 적응을 못하거나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에 기본적인 인성과 직무 수행능력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공감이 맞는 인재를 원하는 것이죠.

어학 능력, 자격증, 대외활동, 공모전 수상 등 다양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스펙이 획일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이 준비해야하는 진짜 '스펙'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급하신 스펙들이 이제는 입사 지원의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현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고 지원자들 사이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요건은 바로 직무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과 해당 부서와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 관련 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것만큼 직무를 경험하기 좋은 방법이 없죠. 하지만 인턴이 어렵다면 아르바이트, 동아리, 스테디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직무 관련 경험에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 있어서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스펙 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

기소개서와 면접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신의 스펙을 나열하는 자기소개서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것이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내 이야기를 풀어내갈 소재들이 필요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직무 관련 경험이 자기소개서의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 경험을 했다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돼요. 자신의 경험을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아주 면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이를 통해 어떻게 직무에 활용하고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당 기업에 얼마나 적합하고 필요한 인재인지 자신만의 이야기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인사팀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인사팀에 지원해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지원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인사 분야의 시야를 넓힌 친구였죠. 최종 PT 면접에서 과제를 내주었는데 이미 업계 용어를 알고 사용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다양한 형태로 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축적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여러 활동을 통해 단순히 경험만 많이 하는 것보다 입사 지원, 최종면접에서 교과 역할을 해줄 경험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 경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막상 취업을 준비할 시기가 오더라도 대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

그렇죠. 어쩌면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

닐까 싶네요. 뭘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그렇기에 자주 주춤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따라서 이것저것 하기는 하는데 막상 뭘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먼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사실 취업을 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해요.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일단 종이에 써보세요. 배웠던 것, 경험하고 느꼈던 것, 성취했던 것,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쓰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내가 보일 것입니다. 학교 시험공부하랴, 어학 점수 올리랴, 자기 자신은 뭘 잘하는지 사실 돌아볼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공부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가 곧 자존감이 되고 자신감이 되니까요. 만약 혼자서 답을 찾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계속 머리도 고민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심리적인 불안, 우울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워 줄 코치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한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해야겠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다음에 직업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되고 싶나'보다 '어디서 놓고 싶나'를 생각해 보고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야 해요. 유망직종, 대기업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게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면 어렵게 들어가서 제대로 놀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분야를 찾은 다음에 그 일을 잘하는 기업을 찾아



야 합니다. 연애를 하듯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고 나와 공감이 맞는지도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관련 직무 경험을 꾸준히 쌓고 공부한다면 취업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취업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찾았으면 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에 취미나 특기를 쓰는 칸이 있어도 선뜻 쓰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즐겨 하는 취미를 찾아서 꾸준히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시험이나 공부 아니에요. 간단하고 쉬운 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는 청년들은 미래

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청년들이 목표, 삶의 방향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기계발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평생토록 목표를 가진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하는 운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막연한 걱정을 하기보다 지금 당장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대학을 다니는 동안 나는 뭘 배웠지', '여태 뭘 하며 살았지'라는 막연한 고

민이 온 머릿속을 뿌연 안개처럼 뒤덮을 때, 그럴 때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삶의 방향, 삶의 목표를 말이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대학생이 되자 이제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돌아켜보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기보다, 삶의 방향을 찾기보다 눈앞에 놓인 진학과 취업만을 고민했던 것 같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015년, 올해가 가기 전 '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떨까?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한성미식회

한 손에 쏙, 한 컵으로 든든한 컵밥



① 'ㄷㅏㅑㅓㅓㅓ'의 훈제오리 컵밥



② 'ㅈㅏㅑㅓ'의 나이시라이스



③ 'ㅂㅑㅓㅓ'의 치킨카레와 삼위일체 2번

‘ㄷㅏㅑㅓㅓㅓ’

컵밥이 괜히 노랑진 명물이 아니다. 바쁜 수험생과 고시생들이 싸고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사가 바로 컵밥이기 때문! 우리 한성대에도 이런 컵밥집이 있다. 종류도 다양해 제일 기본인 정육각형 감자튀김과 달달한 닭강정이 올라가는 'ㄷㅏㅑㅓㅓㅓ'부터 밤샘을 자주 하는 시험기간에 몸보신하기 딱 좋은 훈제오리 컵밥까지. 많이 달라고 하면 인심 좋은 주인 아주머니가 밥을 듬뿍 얹어주시기도 한다고. 밤심이 많이 필요한 학생들은 게이북! "훈제오리 아니면 베이컨이 짱.",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줘서 좋다." 등의 평가.

‘ㅈㅏㅑㅓ’

코를 자극하는 매콤한 향신료에 흘러 자리를 잡은 검정색과 빨간색 인테리어로 도배된 ㅈㅏㅑㅓ! 눈을 자극하는 검정과 빨간색이 이곳의 컵밥은 후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자극적인 향신료의 향이 코를 알싸하게 만들고 동시에 길보기엔 하나도 안 매울 것 같은 밥은 먹는 순간 반전을 일으킨다. 후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스오부시로 혀를 달래보지만 여전히 맵다는 게 함정. 맛은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으로 선택이 가능해 시험을 망친 날엔 눈물 속 뿜 만큼 매운 매운맛을 주문해 답답한 속을 뽕뽕 풀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다음날 엉덩이가 아파드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 "일일 2ㅈㅏㅑㅓ 하는 듯.", "컵이 작아 보이는데 은근히 양이 많더라!" 등의 평가.

‘ㅂㅑㅓ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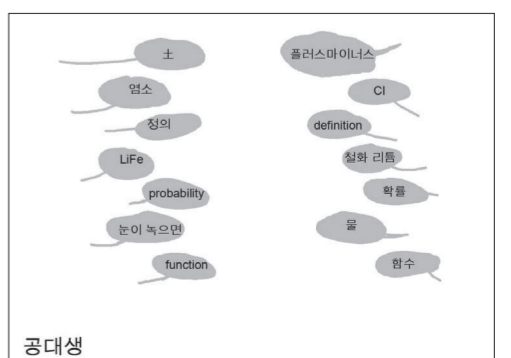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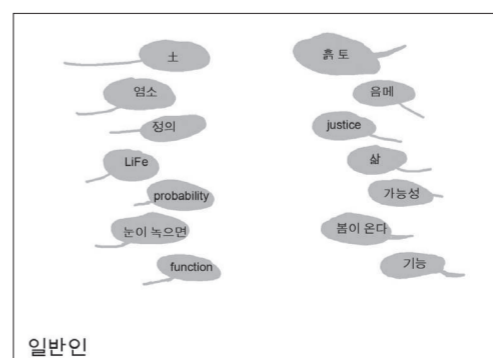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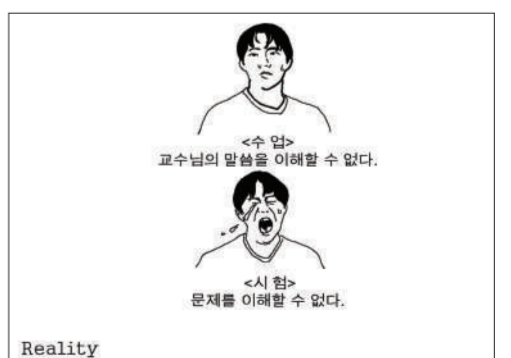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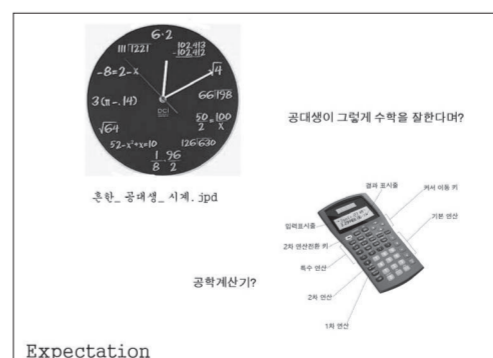
컵밥에서도 엄마의 푸근함을 찾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한성대 공식 이모들의 컵밥집 'ㅂㅑㅓㅓ'! 그곳에 들어가면 구성진 사투리로 이모들이 반갑게 우리를 맞이한다. 종류도 컵밥부터 닭밥, 그리고 떡볶이와 라면 같은 분식까지 다양해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 양도 이모들의 후덕한 인심답게 어마무시하게 많아 웬만한 성인 남자들도 한 공기 푹딱 해치우면 배가 그득하다고. "치킨카레 넘나 맛있는 것", "가격도 착해서 주머니가 넉넉지 않을 때 가기 좋음.", "제육볶음이 푹 달아서 내 스타일임." 등의 평가.

김민정 기자 kmj@hansung.ac.kr

과대망상

—공과대학

글.그림 임태미(시각영상2)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올해는 광복을 맞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국내외의 독립운동에 관한 다수의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민족운동사학회도 국가보훈처 등의 후원을 받아 올해 네 번이나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을 비롯한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외의 독립운동의 현장은 중국 관내(關內), 중국의 동북지역(만주), 연해주지역, 미주지역, 일본지역 등 다양하다. 중국 관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열단 등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중국의 동북지역에서는 북로군정서와 조선혁명군과 대한독립군 등의 무장독립운동단체가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미주지역에서는 대한인국민회 등이 조직되어 한인의 생활을 돕고 군자금을 모집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8독립선언을 행하여 3·1운동의 발생에 기여하였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였다.

안중근의거와 청산리 전투의 현장
이러한 다양한 지역 중에서, 독립군이 부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맞서

서 싸운 대표적 독립운동의 현장은 바로 중국의 동북지역이었다. 이곳에서는 을사늑약 이후 망명한 지도자들에 의하여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었고, 안중근의거 등의 의열투쟁이 전개되었으며, 3·1운동 후 무장투쟁단체가 조직되어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같은 승전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독립군들이 중국의 유격대와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05년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하자, 독립운동가들은 압록강 대안인 서간도, 두만강 대안인 북간도, 흥개호 근처의 북만주 지역으로 망명하여 수십만 명의 한인을 토대로 이곳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였다. 유하현과 통화현에는 경학사와 부민단 등의 자치단체가 조직되어 한인의 생활을 돕는 한편 신흥강습소 등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리고 연길, 화룡, 왕청, 훈춘 등지의 연변에서는 간민회 등의 자치단체가 조직되어 한인의 정착과 경제 활동을 후원하고, 명동학교와 은진학교 등을 통하여 한인의 민족의식을 진작시켰다. 그리고 흥개호 주변의 밀산 등지에는 대종교도 등에 의하여 한흥동이란 독립운동근거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19년 3월 서간도와 북간도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독립에 대한 열원은 안중근의거와 3·1운동의 대한독립군단이 조직되고, 북간도에서는 김좌진이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부도독부, 안무의 국민군 등이 조직되었다. 이 무장독립운동단체는 각기 근대식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된 수백 명의 독립군을 거느리고 활동하였다. 예컨대 대한군정서는 1920년 8월 경 1,200명의 병력이 소총 1,200정, 탄약 24,000발, 권총 150정, 기관총 7정, 수류탄 780개로 무장하고 있었다.

중국 동북지역의 무장독립운동단체들은 1920년 초 독립운동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용하였고, 더 나아가 단체의 통합을 이루었다. 1920년 5월 최진동의 대한군부도독부, 구춘선의 대한군부도독군부를 결성하였다. 1920년 6월 봉오동전투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통합부대의 공동작전의 결과였던 것이다.

1920년 7월 이후 중국 동북지역의 무장독립운동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파원의 지도를 받아, 완전편성 시 1,600명으로 이루어진 2~3개 연대를 편성하였다. 이 연대급의 독립군부대는 각기 김좌진, 홍범도 등에 의하여 통솔되었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개된 청산리전투에서, 2,000명 정도의 독립군이 수백이나 많은 일본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소대-중대-대대-연대의 체계적 편제 하에 구성된 독립군부대가 공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던 때문이었다.

청산리전투 시 육군소장 아즈마(東正)가 이끄는 5,000명의 일본군이 2도구와 3도구에 주둔한 홍범도 부대와 김좌진 부대 등을 공격했으나, 두 부대는 서로 협력하여 전투를 벌여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던 것이다. 10월 21일에는 김좌진 부대가 백운평, 홍범도 부대가 천수평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10월 22일에는 김좌진 부대와 홍범도 부대가 합세하여 여랑촌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다. 『독립신문』에 보도된 「대한군정서보고」에 따르면, 일본군은 사망자가 연대장 2명과 기타 장교 이하 1,254명, 부상자가 2,000여명인 데 비하

여, 아군은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5명, 포로가 2명에 불과하였다.

청산리전투 후에도 일본군의 포위 공격이 계속되자, 대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국민회 국민군 등의 독립군들은 1920년 말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노령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노령에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군사령부를 편성후 항일투쟁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러시아의 배신으로 1921년 '자유시참변'이란 큰 희생을 겪었고, 1924년 일본과 러시아의 평화조약 체결 후에는 노령 밖으로 쫓겨나 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노령에서 중국 동북지역으로 돌아온 독립군들은 1922년 남만주의 환인에서 통의부를 조직하였다. 그렇지만 통의부는 정치이념의 차이 등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참의부(1923)와 정의부(1924)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북만주에서는 김좌진 등의 노력으로 1925년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이 시기 독립군들은 국내에 진공하여 적의 요인을 처단하고, 기관을 파괴하고 밀정과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참의부의 독립군들은 1924년 평북 강계군의 마시탄 지역에서 국경을 순시 중이던 사이토 총독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 말 중국 동북지역의 독립운동단체는 민족유일당운동의 결과 국민부와 한족총연합회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 단체는 1930년대 초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으로 발전하였고, 각 당은 산하에 무력조직으로



▲ 여순감옥

각기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을 편성해 두고 있었다.

대표적 의열투쟁의 발원지

1930년대 전반기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은 각기 양세봉과 지청천 등의 지휘 하에 중국의 구국군과 힘을 합하여 대일항전을 전개하였다. 조선혁명군은 요녕민중자위군 등과 함께 영령가 전투(1932)와 신빈현 전투(1932) 등지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고, 한국독립군은 길림자위군 등과 창성보전투(1932), 대전자령전투(1933) 등지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다.

한편 중국의 동북지역에서는 적의 요인을 처단하거나 시설을 파괴함으

로써 우리의 독립에 대한 열의를 떨치기 위한 의열투쟁도 전개되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안중근은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체프와 면담하러 온 이도오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하였다. 그리고 1919년 11월 길림에서는 김원봉 등이 의열투쟁단체인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1920~30년대에 대한독립단·서로군정서·대한통의부·참의부·정의부·신민부 등의 독립운동단체들은 의용군, 모험대, 암살대 등의 비밀결사형 단체를 조직하여 집단적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30년 대 초에는 김구가 지휘하던 한인애국단 소속의 최흥식과 유상근이 대련에서 관동군사령관을 처단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의열투쟁 전공자인 김영범 교수의 주장처럼, 중국의 동북지역은 중국의 관내지역(關內地域)과 더불어 대표적 한국의 의열투쟁의 발원지였던 것이다.

중국의 동북지역이 항일독립운동의 대표적 현장인 만큼, 이 지역에는 수많은 독립운동사적지가 산재해 있다. 북간도에는 윤동주의 고향이었던 명동촌, 가곡 '선구자'의 무대인 용정촌,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현장 등이 있다. 그리고 북만주에는 안중근의거지인 하얼빈역, 산시와 해림의 신민부 유적지 등이 있다. 또 남만주에는 유하현과 통화현의 신흥무관학교 터, 여순감옥 등의 유적지

가 있다. 현재, 각종의 기념사업회가 중국 동북지역의 독립운동사적지를 탐방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백야김좌진정군기념사업회'는 여순-단동-환인-집안-통화-백두산-연변-산시-하얼빈 등지의 독립운동사적지를 9박 10일의 일정으로 돌아보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한 선열들의 정신을 느끼고 가슴에 담아왔으면 한다.

조규태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



▲ 청산리전투기념비



▲ 안중근 기념관

서원재교수의 락거름

스포츠 마케팅의 가치는 적자생존에 있다

얼마 전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구단주들이 '스포츠 먹거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즌 성적과 승리가 관중동원과 흥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지만 스포츠는 본래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스포츠 시장은 가장 강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택한다는 얘기다.

스포츠에서 경쟁과 승리는 팬들의 관심을 끌어야 할 중요한 요인인데 틀림없다.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이거나, 소속 팀 선수가 눈부신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더 많은 팬들이 경기를 찾게 된다. 하지만 스포츠에서는 모두 승자가 될 수는 없다. 경기력을 무색하게 하는 불확실성의 원리를 감안한다면, 이길 확률은 50%이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그

럭저럭 리그를 꾸러기는 팀과 실망스러운 경기로 허위권을 뽐내는 팀이 생기는 것이다. 스포츠 의사결정자들은 수많은 선택이 존재하는 여가시장에서 팬들의 의사결정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일까. 관중동원을 위한 미디어의 내조마저도 무색해지는 시즌 중의 팀 빈 경기장을 보고도 속수무책이다. 갈대와 같은 팬들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즌 말의 한류 장사로는 늘 하기 싫은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자연도태되고 만다.

스포츠 마케팅이란 본디 팬들의 마음과 한정된 시간을 탐내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팀의 시련과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팬 저변(fanbase)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프리미엄이 3부 리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리그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세퍼드 유나이티드가 좋은 예다. 이 팀은 스포테인먼트 중심의 지역밀착 마케팅으로 팬들

을 축구장으로 몰려오게 한다. 놀라지 마라. 이 팀의 흥경기에 어김없이 전 좌석이 매진된다. 그런가 하면 MLB의 화이트삭스는 구단주가 홈구장에서 팬의 결혼식 주례를 서기도 한다. 이른바 노스텔지 마케팅이다. 감독과 선수들이 하객으로 참석하는 이날은 신혼부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이들 부부와 자녀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화이트삭스의 팬으로 영원히 남는다.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만큼 대중의 관심을 끌어온 여가활동도 드물다. 하지만 오늘날 국내 스포츠는 위기에 놓여있다. 여가의 선택이 늘어나고 스포츠 간 시장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해외 스포츠가 가세해 안방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족과 야구장을 즐겨 찾았던 아버지가 자녀의 입시준비로 부인의 반대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까. 열렬한 야구팬이 아닌 이상, 그는 주말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할

것이다. 혼자서라도 계속 야구장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야구 관람을 포기하고 하이лай트 뉴스나 요즘 관심을 갖게 된 메이저리그 방송 일정을 뒤엎을 것인지. 야에 야구를 멀리하고 비디오 게임, 영화 감상으로 주말취미를 바꾸거나 자녀의 수학문제 풀이를 돕고 가사일로 오후를 보내는 것 등등. 어쨌든 그의 결정에 따라 야구장이 팍 차고, 시청률이 오르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는 건 분명하다.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 또다시 먹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이들과, 아버지의 고민 또한 깊어만 간다. "가장 강한 자가 아닌,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택한다"는 스포츠 마케팅의 적자생존론이 새삼 와 닿는 건 아닐까.

서원재

을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아플 때는 욕을 해라!

"씨!" 문에 엄지발가락을 찡는다면 A4 용지에 손가락을 베일 때 자신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말이 그게 뭐니, 말 좀 예쁘게 해라'와 같은 잔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다쳐서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욕설 때문에 잔소리까지 듣는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좋은 처방이 나왔다. '아플 때는 욕설이 필요하다'는 영국 킬 대학 심리학교실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다.

킬 대학의 교수 리처드 스티븐슨은 '날 망치로 엄지손가락을 때리는 실수를 한 후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는 경험을 했다. 이를 계기로 스티븐슨 교수는 71명의 학생을 데리고 욕과 고통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팀은 학생들이 평소 얼마나 욕을 하는지 조사한 후 집단을 나눠 일을 맡아 손을 넣고 오레 버티는 실험을 한 것이다. 이때 연구팀은 A집단에게는 욕을, B집단에게는 점잖은 말을 할 것을 요청했다. 실험 결과 평소 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욕을 할 때 고통을 잘 참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소 욕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 중 B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얼음물에서

70초를 버텼고 A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2배인 140초를 버텼다. 이에 비해 매일 최대 60번까지 욕을 했던 학생들은 A집단과 B집단에 상관없이 평균 120초를 버텼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정답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에 있다.

아드레날린은 인간이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등의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신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내장에 있던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며 통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진다. 아드레날린은 사람이 욕을 해 감정적인 흥분상태가 되었을 때도 분비되는데 특히 평소 욕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욕을 했을 때 더 많이 분비된다. 이런 이유로 평소 욕을 많이 했던 사람보다 안하던 사람이 욕을 했을 때 통증이 더 완화되어 고통을 잘 참게 되는 것이다.

실험이 끝난 후 스티븐슨 교수는 "욕은 적당히 사용하면 진통제가 없거나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효과적이고 손쉬운 단기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욕을 입에 달고 산다면 이 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욕이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



에서 신체가 잘 대처하도록 하는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제 당신은 낮은 마일버스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을 핑계가 생겼다.

김민정 정기자 kmj@hansung.ac.kr

혼자서도 잘 먹어요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현정은 기자 hj64757@hansung.ac.kr

대학생 열 명 중 일곱 명은 혼자 밥을 먹는다는 요즘, 학생식당, 학교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일은 대학생들의 일상이 되었다. 2학기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학교에서 가까운 식당은 이미 섭렵했을 터,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한 식사는 이제 그만 혼자서도 잘 먹어보자. 한성대입구역 근처 혼자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 맛 집을 소개한다.



꿀맛식당

‘한성대입구역 근처 맛 집’을 검색하면 나오는 이 식당. 바로 꿀맛식당이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을 지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이 가게. 좁은 가게 내부는 마치 가정집 주방과 거실을 연상케 한다. 밥상을 개조한 식탁도 눈에 띈다. 아늑한 분위기 때문일까? 혼자 오는 손님들이 꽤 많다.

주문을 하고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와 함께 즐거운 소리가 들려온다. 꿀맛식당에서는 주문 후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

인기메뉴는 고소하고 담백한 푸짐한 양의 오므라이스. 그야말로 꿀맛이다. 오므라이스 외에도 파스타와 볶음밥, 햄박스테이크 등의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 매일 매일 다른 메뉴를 맛보고 싶은 꿀맛식당. 신선, 가로수길 맛 집 부럽지 않다.



| | |
|------|----------------------|
| 추천메뉴 | 오므라이스, 두겹 햄박스테이크 |
| 영업시간 | 11:30-22:00 |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44번지 |
| 주의사항 | 매주 수요일은 쉽니다 |

웹툰 미줄긋다

<묘진전>

젤리빈



“누군가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야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바늘 끝에 찔렸다고 우는 법이다.”

<묘진전> 4부 8화

어느 순간 버스 유리창에 비쳐 보이는 나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동공 두 개뿐인 듯했고 내 몸은 ‘힘이 일도 없다’는 말이면 표현이 적절할까 싶었다. 멍하니 보이는 내 모습에 무언가 서러웠고, 이유는 모르겠다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일일 드라마 속 어머니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 썩어 문드러지기까지 할까 어릴 적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느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왔다.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다 못해 시리게 느껴졌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에 눈물을 흘리던 때가 그리웠다.

웹툰 <묘진전>은 기묘한 이야기를 전래동화처럼 풀어나간 판타지 웹툰이다. 여주인공 막만(달래)의 인생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표현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질 정도로 불행했다. 노예의 딸로 태어나 뱃속까지 더러워진 주인공 막만(달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인공 막만의 심술로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고 사사건건 괴롭힘을 받는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막만이는 그 불행을 참아내는 듯했

다. 진홍이 막만의 얼굴을 괴물처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말이다. 사실 막만이는 달래라는 예쁜 이름을 가졌는데 이후 진홍에 의해 ‘신이 막 만들어 놓은 꿀이란 뜻의 막만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진홍의 못된 심술은 끝이 없고 막만이는 죽음의 끝에 겨우 힘을 내어 진홍으로 부터 벗어나보려 한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지 막만이는 진홍에게 벗어나니 귀신들에게 잡혀 목숨마저 잃게 된다. 그 억울할 때문인지 막만이가 사람의 모양새를 한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 억울하게 그녀의 삶을 불행하게 했던 것들과 진홍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진홍은 절대 악을 보인다. 하지만 힘을 가졌다. 막만이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힘도 없었다. 진홍은 자신의 심술로 만든 귀신을 이용해 나라로부터 상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척하며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는다. 어느 누구 하나 진홍이의 악행, 막만이의 불행한 삶을 알아 주지 못했다. 막만이는 이에 ‘누군가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바늘 끝에 찔렸다고 우는 법이다’라고 말한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다바타 식당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주방장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다바타 식당이다. 이곳은 소개되는 4곳의 식당 중 학교에서 거리가 가장 가깝다.

다바타 식당은 ‘ㄷ’ 형태의 테이블로 되어 있어 혼밥을 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인 곳이다. 다바타 식당의 대표 메뉴는 도시락 정식이다. 주문을 하면 입맛이 돋게 과일이 들어간 애플타이저가 제공된다. 튀어 버릴 소스가 들어간 상큼한 샐러드, 오이와 우엉 소금 절임, 달걀탕이 나온다. 이후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인 채 나오는 도시락은 뚜껑을 열면 감탄을 자아내게 만든다. 도시락 1층에는 밥, 2층에는 달걀말이, 시금치 무침, 채 썬 당근볶음, 닭고기 구이로 채워져 있다. 사장님도 유쾌한 이곳이라면 혼밥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 | |
|------|---------------------------------------|
| 추천메뉴 | 도시락 정식, 닭고기 정식 |
| 영업시간 | 11:30-22:30 |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16번지 삼선5층 아파트 상가 114호 |
| 주의사항 | 식사료는 매일 들어가며 네 가지 메뉴 중 두 가지 메뉴만 판매합니다 |



독자이벤트

독자이벤트는 한성대 신문을 구독하는 학우분들에게 연극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신문을 읽고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풀어주세요!

- Q1. 사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긴급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곳을 쓰시오.
- Q2. 학술 중국 OO지역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추첨방법

경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연극<삼봉이발소> 티켓을 (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발송하여 주세요.

• 지난해 당첨자 •

- 507호 연극티켓 당첨자
- 서현수(계시원 1)
- 조은형(무역 4)
- 이주용(행정 2)

당첨자는 신문사로 방문해 연극티켓을 수령해 가지면 됩니다.



활어의 유혹

빨간색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의 단조로운 인테리어. 아담한 가게는 포장마차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과 결코 저렴하지 않은 신선한 회와 초밥의 맛이 인테리어를 압도한다.

가게가 아담하기 때문에 혼자 가게에 들어서도 부담이 없다. 저녁에는 야외 테이블까지 펼칠 정도로 붐비지만, 낮에는 꽤 한산한 편. 이때를 노리자. 신선한 회와 초밥을 부담 없이 즐길 기회다.

다양한 메뉴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회덮밥과 모듬 초밥을 추천한다. 광어와 연어 매니아들은 광어 초밥, 연어 초밥을 시키면 된다. 둘 다 먹고 싶다고? 광어 초밥과 연어 초밥이 반반 나오는 메뉴도 있다고 고민 고민 하지 마! 신선한 회, 초밥이 먹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찾자. 활어가 유혹한다.



| | |
|------|--------------------|
| 추천메뉴 | 모듬초밥, 광어, 연어초밥 |
| 영업시간 | 16:00-3:00 |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2 |
| 주의사항 | 일요일은 쉽니다 |

골목집

골목집은 식사 시간만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맛집이다. 골목 사이에 있는 이곳은 많은 손님 때문에 근처에 2호점을 차리기도 했다.

매일 바뀌는 밑반찬은 자취생이라면 오랫동안 먹지 못한 ‘엄마의 밥상’을 떠올리게 만든다. 특히 1호점은 가정집을 개조했기 때문에 집밥의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다. 골목집에는 혼자 와서 끼니를 해결하는 손님도 많기 때문에 혼밥하는데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골목집의 대표 메뉴는 생선구이 백반이다. 짭조름한 생선구이는 집 나갔던 식욕도 데려와 만한 밥 도둑이다. 생선구이에 찍어 먹는 겨자소스의 알싸한 맛 역시 식욕을 돋운다. 혼자 먹는 밤, 엄마의 밥상이 그리다면 골목집을 꼭 추천한다.



| | |
|------|---------------------|
| 추천메뉴 | 생선구이백반, 시골정경떡 |
| 영업시간 | 11:30-2:00(주말만) |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2층 |
| 주의사항 |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



위로컴퍼니 2nd 연극

original version

연극 삼봉이발소

“너무 불공평해.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빈이 결정되어 있잖아!”

2015.05.01 - OPEN RUN 대학로 위로홀

제작/기획 위로컴퍼니 | 원작 하일권 | 극본/연출 진중현 | O.S.T 최종환 | 조명감독 박두환
예매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AUCTION42 | 해어림찬 [az az](http://www.azaz.com) | 스튜디오협찬 Bas C Studio

대화로 위로홀

1
다시 그 때로 되돌아간다면 나와 리코는 어떤 삶을 살았...

그것은 내가 어떤 바 있던 유서 중에 어떤 재한 절을 들었...

그런데 유서를 받은 후엔 권수연은 창문에 가득 차 있...

"나중에 언젠가라도 정리가 필요하니까..."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도 이제 우리 사이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인식할 땐...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2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3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4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5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6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7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권수연은 그걸 읽을 때였다. 어떤 연경 그...

제30회 한성대신문 문학상 공모모임



접수마감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까지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주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5편 이상)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 로 제출 (e-mail만 접수 받음)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11월 30일에 발행하는 한성대 신문 제510호에 게재됩니다.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표

한성대 신문 510호 (11월 30일 발행)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원 및 상패

시 - 40만원 및 상패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한지선 편집국장 010-9075-3570